

# 전국 야구팬들 광주로 광주로...경기장 안팎 빛 속 응원 열기 '후끈'

### K1 1차전 KIA:삼성 경기 시작 전부터 인산인해 티켓 구하지 못한 팬들 DJ센터 야외광장서 응원전

"7년만의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를 보고, 들고,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21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북구 임동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앞은 KBO 한국시리즈 1차전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보기 위한 팬들로 인산인해였다.

경기가 열리기 3시간 전인 오후 3시경부터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조금이라도 일찍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 출구 앞에 진을 쳤고 유니폼을 구매하기 위한 대기줄도 장사진을 이뤘다.

선수들의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은 들뜬 반격음으로 양 손에 음식을 챙겨들고 경기장을 찾았다.

경남 거창에서 청과업을 하는 김준희(29)씨는 가게 문을 닫고 광주를 찾았다. 시즌권으로 현장 선예매를 해 7차전까지 모두 예약했다는 김씨는 "제작년에 LG트윈스 팬인 친구를 따라 챔핑에 왔는데, 기아의 응원열기에 푹 빠져버렸다. 그때부터 기아 팬이 됐다"며 응원봉을 흔들며 보였다.

오정원(광주시광산구·50)씨는 "7년만의 한국시리즈 시즌권으로 어렵게 예매했다"며 "연차를 쓰고 혼자 왔는데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간접함을 모아 이번에 꼭 우승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으면 좋겠다"고 웃어보였다.

삼성을 응원하기 위해 대구에서 온 이들도 있었다.

김창완(53), 차경순(44)씨 부부는 이날 연차를 쓰고 대구에서 왔다. 1982년부터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한 '찐팬'인 김씨 부부는 파란색 삼성 유니폼에 구자욱이 적힌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김씨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삶에 한줄기 빛같은 한국시리즈의 첫 시작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루 휴가를 냈다. 광주는 언제와도 기본 좋고 정겨운 도시인 것 같다"고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경북대에 다니는 김경현(대구 수성구, 26)씨는 이날 오전 수업만 듣고 한국시리즈를 보기 위해 부리나케 광주행 버스에 올랐다.

광주 첫 방문이자 첫 원정응원이라는 김씨는 "원태인 선수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볼 수 있다니 기대되고, 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기대반 걱정반으로 경기를 볼 것 같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경기 티켓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 광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단체로 관람할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와 푸드트럭 등이 마련돼 있었다.

이날 시민들은 야외광장에 마련된 좌석을 꼭 채웠기 때문이다. 황 양은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경기를 볼 수 있어서 꼭 경기장에서 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덜하다"고 했다.

경기 시작 10분을 앞두고 거세진 빗방울에 경기장에 방수포가 깔리고 걷히는 모습을 스크린으로 바라보던 시민들은 탄식을 내뿜었지만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 광장에 설치된 응원장에서 시민들이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를 응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30분경 경기가 개시되자 환호성이 쏟아졌다. 여수에서 친구 3명(대전 2명, 광주 1명)과 함께 온 김호성(34)씨는 "2009년부터 기아 팬이다, 역사적인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경기 티켓을 구하지 못해 방법을 찾던 중 컨벤션센터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친구들과 시간 맞춰 왔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노민근(41)씨 손을 잡고 푸드트럭에서 칠리새우를 사먹던 장원우(12)군은 "경기장에서 못 봐서 아쉬웠는데 스크린도 크고 음식도 많아서 신난다"며 "경기장은 아니더라도 기아 선수들을 멀리서 응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장에서는 못 봐서 아쉬웠는데 스크린도 크고 음식도 많아서 신난다"며 "경기장은 아니더라도 기아 선수들을 멀리서 응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남대 도서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전

### 한강·한승원 작품 27편 전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학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장르를 넘어 '한강 신드롬'이 일고 있다.

작가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된 가운데 부친 한승원 소설가의 책과 한강의 책을 볼 수 있는 전시도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를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15일 정보마루서 개막한 이번 특별전은 한강과 한승원의 작품 세계를 돌아볼 수 있다.

전시 작품은 한강의 작품 16편과 한승원의 11편이다. 먼저 한강의 책은 '내 여자의 열매'를 비롯해 '사랑과, 사랑을 둘러싼 것들', '여자의 사랑', '붉은 꽃 이야기', '기만가만 부르는 노래', '채식주의자' 등이다. 또한 '눈물상자', '검은 사슴',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노랑 무늬 영원',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 '한강, 채식주의자 길게 읽기'(정미숙 외)도 볼 수 있다.

책들과 함께 작가의 이력과 수상 내역을 담은 '작가 소개', 눈길을 끄는 작품 속 문장들을 묶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전남대 도서관.

의 문장들'도 만날 수 있다. 한승원 소설가의 작품도 마련돼 있어 부친여전(父傳女傳)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해변의 길손'(이상문학상 1988년 수상)을 비롯해 '흑산도 하느님 길', '아제아제 바라아제', '겨울잠, 봄봄', '나 혼자만의 시 쓰기 비법', '사람의 맨발', '사랑아 피를 토하라', '물에 잠긴 아버지', '달개비 꽃엄마', '도깨비와 춤을', '사람의 길' 등이다.

관람객들이 메시지나 마음을 움직인 문장을 쓸 수 있는 '참여공간'도 마련돼 있다. 일반인들은 이용등록증을 제시하거나 당일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입장이 가능하다.

현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강의 작품 18종 150여 권은 수상 소식 이후 전량 대출된 상태이며 대출 예약도 폭증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 "지역기업 AI 제품·기술 체험하세요"

### 시민 누구나 25일까지 '광주시민 AI바우처' 누리집서 신청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 중심 도시' 광주시가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시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추가 선정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시민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자 모집은 비즈니스, 의료·보건·복지, 문화·관광·스포츠 등 총 4개 분야 AI 제품과 서비스며, 제품과 서비스 이용료의 90%에 상당하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고스트패스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의료·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에이아이오디토리류의 '청력 장애 진단 지원 및 청능 재활 앱'과 영앤의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 및 진단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에서는 ㈜인디제이의 '사용자의 실시간 감정인식 기반 음악 추천 서비

스'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시민 인공지능(AI) 바우처 누리집(www.aicavouche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비스 등록 기업과 연결(매칭) 이후 이용권(이용료의 90%)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34개의 광주기업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선정돼 시민 1300여명이 이용권(바우처)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총 28개 광주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18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의 생활 속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풍수·사주

###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평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문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광우이엔지 [갑]과 주식회사 놀비기업 [을]은 2024년 10월 18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영입의 일부인 장기투자유치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하며, 상회 제53조의 9 제4항의 결의 절차 및 합병 절차에 따라 '갑'의 주주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 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연의회총류: 전기공사사업등록번호: 광주-00128)  
2024년 10월 22일

**갑** (주)광우이엔지  
광주광역시 남구 군부동65번길 18, 2층 (주일동)  
대표이사 김영화

**을** 주식회사 놀비기업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14-1 사내이사 조옥연

###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4년 10월 18일 주주총회에서 본 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의 영입의 일부인 '건축공사(이하 "을"이라 한다)를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을"은 "갑"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회사분할계획에 따라 "갑"은 보통주식 60,000주에서 보통주식 23,000주로, 자본금은 금600,000,000원에서 금23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였는 바, 이 회사분할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이후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 회사의 주주들은 등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10월 22일  
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79, 305호(빛가람동)  
대표이사 양영권

### 자본감소공고

(채권자 이의 신청 및 주권제출공고)

씨케이씨산업 주식회사는 2024년 10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을 금1,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9,900주를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를 1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공고 게재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10월 22일  
씨케이씨산업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14-8 (오선동)  
대표이사 강봉대

###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 빌딩, 바닥 628㎡ 대형건물  
대로, 롯데마트 앞

약국 하루 차임간 400원, 6개월 후 10년 임대료, 유동인구 많은 빌딩 / 투자가치 최고  
약국, 내과(의사 3명), 소아과, 통증과 외 기타  
월 3천 4백 (수익률 6.13%)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매매가 78억 은행  
42억5천 / 보9억 4천 포함  
인수가 26억 1천  
010-3646-8700